화려한 모양의 모자를 쓰고 있는 아카족 여성들. '파미 아카족'의 모자(맨 왼쪽)는 큰 구슬 장식이 특징이고, '로미 아카족'의 모자(맨 오른쪽)는 납작한 장식이 특징이다.

"예쁘니까 무거워도 괜찮아"…여인들 모자 쓰고 한평생

아시아 문화 원류를 찾아서 〈54〉

7부 태국 편

❺ 아카족 복식과 풍습

무게 5~6kg, 수백개 구슬 화려한 치장

영혼 지키는 '수호신' 잠 잘때도 착용

결혼식, 마을 전체가 모여 3일간 잔치

신부에게 모자를 씌워주고 있는 모습.

치앙라이 훼이에꼬 = 글 김경인·사진 김진수 기자

아카(Akha)족 여성들에게 모자는 단순한 머리 장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롱 넥 카렌족'이 목에 무거운 링을 두르는 것처럼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검정색 계열의 상의와 짧은 스커트, 정강이에 차는 아대가 아카족의 전통 복식이다. 그 위에 '우훼'라고 불리는 모자를 써야지만 비로소 모든 복장이 완성된다.

모자는 수많은 소수 민족 중에서도 가장 크고, 아름답다.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은구슬이나 함석판, 동전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자는 그 무게가 2kg에서 많게는 5~6kg까지 나간다고 한다. 반면 남성들의 모자는 천만을 사용해서 만든다.

전통적으로 아카족 여성들은 평생 동안 모자를 벗지 않는다고 한다. 심지어는 잘 때도 모자를 쓰고 잤다고 한다. 모자를 벗게 되면 영혼이 자신을 떠나버려서, 결국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1시간30분 거리에 있는 치앙라이의 아카족 마을 '훼이에꼬'(Hui E Ko)에서 만난 아카족도 일부는 아직까지 모자를 자신의 일부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성인 여성뿐만 아니라 어린 여자아이까지 대부분 아카족 여성들은 무겁게만 보이는 모자를 쓰고 다녔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모자의 모양은 아카족 내에서도 구분되는 울로(Ulo) 아카, 로미(Lomi) 아카, 파미(Pami) 아카 등 부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울로 아카는 원뿔 모양의 모자에 은단추, 동전, 구슬 등의 장식을 하는데, 붉은색으로 염색한 원숭이 털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특징이다. 로미 아카는 정사각형 형태의 모자에 단단한 금속판을 여러 겹으로 붙인 것이 돋보이고, 파미 아카의 모자는 구슬장식이 화려하다.

훼이에꼬 마을에 사는 아바 츠릉(여·58)씨에게 "무겁지 않느냐. 벗고 싶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아름다우니깐 무거워도 괜찮다. 가벼운 것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했다.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아카족 여성들은 이 무거운 모자와 평생을 함께 하는 것일까.

어느 날 한 아카족 청년이 사냥을 나갔다가 알몸으로 숲을 떠도는 예쁜 선녀를 만났다. 그는 부끄러워하는 그녀를 위해 옷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마침 그 청년에게는 아카족들이 사냥을 하거나 여행을 할 때 들고 다니는 천으로 만든 가방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잘라 짧은 치마를 만들어 그녀에게 입히고 마을로 데려와 결혼했다.

신랑 가족들은 조롱박을 잘라 모자를 만들어 그녀에게 씌우고 예쁜 닭털로 신부를 치장해주었는데 이것이 아카족 여인들의 짧은 치마와 모자의 시초라고 한다.

한편 숲 속에 살던 다른 신들은 그 아름다운 선녀를 데려간 아카족 남자에게 복수를 계획하고 빼앗긴 선녀도 다시 찾아오려고 아카족 마을로 쳐들어간다. 이 사실을 눈치 챈 마을의 젊은 남녀들은 이 선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을 공터에 모여 밤새도록 대나무를 쓰러진 나무에 두들기며 소리를 내고 춤을 췄다. 결국에는 마을과 친구, 선녀를 모두를 지켰다.

훼이에꼬 마을에서 우연히 젊은 아카족 남녀의 결혼을 볼 수 있었다. 전통 복장을 갖춘 20대 남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렸다.

전통적으로 아카족은 3일에 걸쳐 결혼식을 한다. 첫째 날에는 결혼 하는 남녀가 삶을 달걀을 반으로 나눠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날은 마을 사람들이 밤에 모여 닭을 한 마리 잡는다. 그리고 그것을 요리한 국물을 마을 연장자들이 나눠 먹는다고 한다. 또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라'는 의미를 담아 준비해온 쌀밥과 물을 신랑, 신부가 있는 집에 뿌린다.

이튿날에는 마을에서 돼지를 잡아 음식을 만든 뒤 가장 먼저 신랑과 신부가 음식 맛을 보게 한다.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그 음식을 나눠 먹는다. 또 결혼식 마지막 날에는 닭을 잡아 요리한 뒤 마을 어르신들이 음식을 신랑, 신부에게 먹여주면서 행복을 빌어준다. 전통적으로 신부는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하얀 치마를 입고, 마지막 날에는 검정색 옷을 입는다.

3일 동안 이어지는 결혼식에 춤과 음악이 빠질 수 없다. 아카족에게 결혼식은 하나의 큰 축제나 다름없다. 3일 동안 음식을 나눠먹는 것도 마을 어르신들이 새로 부부의 인연을 맺는 청년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기 위함이다.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 싹 딜레이(29)·랏쏘미 무포(여·25)씨는 "지금은 전통종교인 애니미즘 보다는 기독교와 불교를 믿는 마을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평생 모자를 쓰는 여성들도 줄어들고, 3일 동안 결혼식을 올리는 문화도 많이 사라졌다"며 "3일 동안 결혼식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결혼 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주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kki@kwangju.co.kr

집에서 아무때나 무릎·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물없이 한번에 OK!

효명 휘나핫 HWINA HOT 창립 18주년 할인행사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핫 족욕, 반신욕

휘나핫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 채 사우나를 즐길수 있고, 편히 앉아서 TV나 신문 등을 볼수도 있어 최근 획기적인 사우나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부모님, 부부는 물론 자녀 공부를 하면서 피로를 풀수 있도록 만들어져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하고 하체는 따뜻하게'라는 한의학에서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 냉기가 땀과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체온) 상승되며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응용한 휘나핫 반신욕기는 가정에서 쉽게 물없이 (특허획득 제:0-096707호 발명의 명칭:세라믹 전기발열체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 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핫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대씩 보급될 것입니다(2020년까지).

시중에 유사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휘나핫을 확인하세요.

문의:02-875-0600

www.whinahot.com

계좌번호 :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 효명주식회사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 모집

NAVER 검색창에 반신욕 연구소 검색

물 없는 휘나핫 족욕, 반신욕기

시중 유사품 주의

본사 등록된 분만 사후관리 가능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멸종 위기 식물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능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 등이 들어 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전국 유명서점 판매중]
전국민 공부합시다!
www.successtv.co.kr

문의:070-7804-5358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좀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